

지역대학들과 협력 '청소년 상상학교' 운영

도내 고교생 368명 참여
내달 8일까지 군산대
전북대·원광대서 진행
진로·학업 설계 기회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역대학과 손잡고 '청소년 상상학교'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일반고 학생들에게 진로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와 학업설계 탐색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고등학생 368명이 오는 8월 8일까지 군산대, 전북대, 원광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특강형 12강좌와 탐구형 10강좌가 운영된다. 특히 10개의 주제로 구성된

탐구형 강좌는 관련 연구실을 직접 방문해 20시간의 실험 위주 활동 수업에 참여하게 된다.

특강형 강좌는 인문학, 자연과학, 철학, IT 등을 주제로 다루며, 독서, 토론, 탐구, 실험, 발표 등의 활동으로 학생들을 지원한다.

한편 교육비는 전액 무료며, 강좌 이수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청소년 상상학교는 학생들의 진로탐색과 역량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심 분야에 대한 다양한 수업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와 비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새만금 이차전지 전문인력 양성·기술 교류 '맞손'

전주대, 가온셀과 협약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26일 대학 본관 4층 집견실에서 (주)가온셀과 이차전지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교류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주)가온셀 운영권 대표이사과 전주대 박진배 총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이차전지 관련 전문인력 양성 상호협력 △이차전지 분야 인재 양성과 취업 및 경력 연계 △이차전지 산업 분야 자문, 기술이전, 사업과 협력 등이다.

박진배 총장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통해 우리 대학 학생들은 실제 산업 현장에서 필요



전주대학교는 26일 대학 본관 4층 집견실에서 (주)가온셀과 이차전지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교류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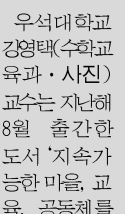
로 하는 기술과 지식을 더욱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대학교는 지난 5월 학사 단위 구조개편안을 확정, 2024학년도부터 미래에너지공학전공, 신소재화학공학과를 신설하는 등 이차전지 관련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열린 배움 공동체 이뤄지길 희망"

우석대 강영택 교수 '마을교육공동체의 역사 탐구'
대한민국학술원 '올 사회과학 분야 우수 학술도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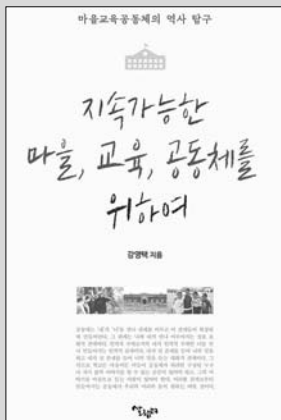


우석대학교 강영택(수학교육과·사진) 교수는 지난해 8월 출간한 도서 '지속가능한 마을, 교육, 공동체를 위하여: 마을교육공동체의 역사 탐구(살림터)'가 대한민국학술원이 주관하는 2023년 사회과학 분야 우수 학술도서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저자에 따르면 이 책은 1부 마을교육공동체의 개념과 역사적 개관, 2부 마을교육공동체의 과거, 3부 마을교육공동체의 현재, 4부 마을교육공동체의 미래 등 총 14장으로 구성,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개념과 필요성, 과거와 현재 사례, 역사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의 학교 실태와 당시 마을학교와 할 수 있는 오산학교와 명동학교, 송산고등농사학원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강영택 교수는 "우리가 살아가는 마을에서 다양한 타자와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모두의 배움과 성장을 이어나가는 열린 배움의 공동체가 이뤄지길 희망하며 살고 있다"면서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논



지속가능한 마을, 교육, 공동체를 위하여: 마을교육공동체의 역사 탐구 책 표지

의를 범주화해 앞으로의 방향을 가늠해 보고, 국내외 사례를 소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려대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와 명동학교, 송산고등농사학원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이들 범주화해 앞으로의 방향을 가늠해 보고, 국내외 사례를 소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왕의지밀과 협약

대학 세미나 활용시 할인 혜택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26일 전주의 대표적인 한옥 호텔인 왕의지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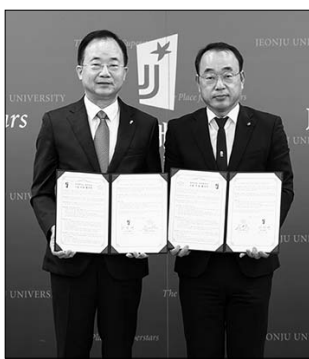
이날 협약식에는 박진배 총장과 손의준 대표이사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교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왕의 지밀은 전주대학교의 각종 세미나 및 교직원들의 호텔 객실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왕의지밀 손의준 대표이사는 "전주대학교와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와 더불어 발전하는 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진배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함께 더 나은 교육환경과 복지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답했다.

한편 (유)제이유비엔비 왕의지밀은 전주의 대표적인 한옥 호텔로 2층 구조의 11개 한옥동으로 편성된 약 6,000평 규모다. 특히 세미나와 웨딩을 위한 연회장, 한식 레스토랑과 카페 등 다양한 부대시설도 갖추고 있다. /정은성 기자



남원교육문화회관, 내달부터 도서관 열람실 주말에도 개방

남원교육문화회관(관장 박수진)은 오는 8월 1일부터 주말에도 도서관 열람실을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주간 주말 도서관 열람실 개방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일요일은 휴관 예정이다.

열람실 개방 확대는 주말에도 학생들이 놀러·꿈터, 지역주민의 쉼터 역할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한편 회관은 본관동 입구에 야간 예약대출기를 설치, 자료실 개방 시간 내에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박수진 관장은 "지역교육지원청,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언제든지 즐겁게 찾아오는 남원교육문화회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북도교육청은 26일 5층 회의실에서 JTJ전주방송과 전북교육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플라스틱 제로 동참... 탄소중립 실천 의지

도교육청, JTJ전주방송과 협약 체결... 환경보호 인식 교육 강화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6일 5층 회의실에서 JTJ전주방송과 전북교육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거석 교육감과 JTJ전주방송 한명규 사장이 직접 참석해 '플라스틱 제로' 협약서에 서명하고,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플라스틱 컵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호 인식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명규 사장은 "JTJ전주방송은 지구 지킴이 캐릭터 '뽀뽀'와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 제작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보다 많은 학생들이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탄

소중립 실천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플라스틱 제로 문화 확산을 위한 오늘의 협약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우리의 다짐이며 지역사회 더 나아가 지구를 살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교육과정과 연계한 생태전환교육을 활성화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정은성 기자

교원 디지털·AI 융합교육 역량 강화 '속도'

도교육청, 서울 센터필드서 28일까지 '마스터 과정' 연수...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구성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 발맞춰 미래교육 환경 구축과 학생들의 미래역량 교육을 위한 교원의 디지털·AI 융합교육 역량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에듀테크 기반의 교실 수업 환경 조성을 통해 학생들의 디지털 교육 역량을 기르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교원의 전문성 향상 지원을 위해 디지털·AI 마스터 과정 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고시에 따른 디지털 기초소양 강화 및 디지털 교육 체제로 발 빠르게 전환하기 위해서다.

2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AI융합교육대학원 재학(졸업/수료) 교원, 중등 정보교원 등 AI융합교육 분야에 역량있는 교원 중 24명을 선발, 서울 센터필드 아마존웹서비스(AWS) 강의장에서 26~28일 3일간 총 24시간 과정으로 진행된다.

아마존웹서비스는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의 세계적인 기업인 아마존닷컴의 클라우드 컴퓨팅사업부로, 현재 IT 전문가 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디지털·AI 마스터 과정 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AI융합교육대학원 재학(졸업/수료) 교원, 중등 정보교원 등 AI융합교육 분야에 역량있는 교원 중 24명을 선발, 서울 센터필드 아마존웹서비스(AWS) 강의장에서 26~28일 3일간 총 24시간 과정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연수는 클라우드 기초부터 아마존의 혁신 방법까지 이론과 실습을 통해 폭넓게 배울 수 있는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구성됐다.

민원성 미래교육과장은 "스마트기기 제공, 에듀테크 교육 환경 기반 마련, 교수학습플랫폼 구축 등 미래교육 환

경 기반을 충실히 마련해가고 있다"면서 "디지털 교과서에 적용 가능한 교원의 시가만 교육과정 편성 및 수업역량 강화, 그리고 AI융합교육 전문성 함양 및 인식 개선 연수 등 다양한 연수를 통해 교원들의 전문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기업·투자자간 네트워크 형성

전북대, 투자역량강화 CI 캠프



전북대 창업지원단(단장 권대규)은 25~26일 이틀 간 '투자역량강화 CI(Consulting Investor Relations) 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전북지역 44개 기업이 참여해 투자에 대한 이해와 투자유치 전략 수립, 투자 유치를 위한 사업 계획 발표 요령 및 계획서 작성법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또한 기업과 투자 전문가와의 멘토링을 통해 투자 유치 사업계획서와 기업성장 로드맵 등을 기업들이 직접 작성해 보고 심층 상담도 진행됐다.

특히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대표 및 투자 심사역 등 25명의 투자 전문가가 참여해 12개 기업과 투자 의향서를 작성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한편 이번 캠프에서는 기술력과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들을 선발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 의향서 작성에만 그치지 않고 후속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한 실질적 투자 유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기업의 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권대규 단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우수 창업기업에게 투자유치의 기회를 제공하고, 투자기관과 기업 간의 소통 창구를 제공해 나가겠다"며 "후속 프로그램 지원으로 투자 전략프로세스 확립과 후속 멘토링 운영 등 지속가능한 투자 매칭 기회를 제공해 지역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